

영암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의 여름방학을 응원하다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지역 24개팀 대상

꿈과 도전의 여름방학 활동 지원 컨설팅 실시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지난 8월 7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미래 도전 프로젝트의 영암지역 24개팀 대표들을 대상으로 꿈과 도전의 여름방학 활동 지원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컨설팅 일정은 사례 나눔, 1학기 활동 분석, 여름방학을 이용한 활동 방향 컨설팅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2019년도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우수 성과를 가진 2개 팀을 초청하여 사례발표와 질의

응답시간을 가짐으로써 적극적인 동기부여 시간을 가졌다.

이후 팀별 5개 그룹으로 컨설팅트를 매칭하여 사례 공유, 분석, 활동계획 수정 등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본 행사를 기획한 영암교육청 김일식 장학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학생들의 도전 프로젝트 일정 추진에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고 싶었다.

1학기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한 팀들이 많아 여름방학이라는 시간과 2학기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협력적 접근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으로 자신감에 찬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효과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지속성을 위하여 본 행사를 기획하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못했던 팀별 계획의 수정 보완에 집중하며 상호간 조언 및 향후 팀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치며 적극적 협업 활동을 하였다.

컨설팅에 참여한 영암여고 1학년 김민은 학생은 “작년도 선배들의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새로운 자신감이 생겼다. 우리들의 미래

꿈과 대입 등의 진로와 연관지어 활동할 수 있다는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이번 컨설팅을 통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다른 방법, 다양한 언택트적 방법도 적극 찾아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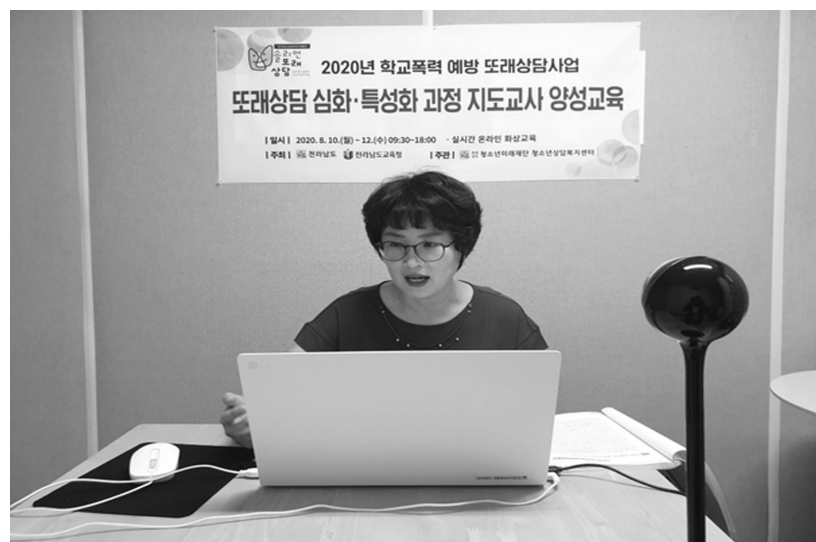
한편 영암교육지원청 김성애 교육장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행이 되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협업하며 꿈에 대한 도전을 그려가는 도전프로젝트로서 향후 우리 영암은 영암형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를 확



대주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전남교육청, ‘또래상담’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도내 461개 학교 운영...지도교사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지난 5월 ‘2020년 또래상담 운영계획’을 세운 이래, 전남의 모든 학생들이 학교 인력의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또래상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래상담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함께 찾는 일로, 전남교육청은 지난 2012년도부터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전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전남 전체 학교 중 절반이 넘는 461교(초 231교, 중 126교, 고 103교, 특 1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

생회(또래상담부) 및 동아리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초·중·고 또래상담자 및 내담자 총 1,8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또래상담 효과가 뚜렷했다.

‘학교폭력 대응역량 향상도’는 사전 대비 사후 4.347점 상승한 82.822점, ‘또래상담 만족도’는 전년도 대비 0.2점 상승한 88.92점, ‘학교생활만족도’는 사전 대비 사후 2.53점 상승한 76.93점 등 전 부문에서 효과가 입증됐다.

이처럼 또래상담은 상담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개선 및 개개

인 성장을 이끌어 내고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또래상담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학교 담당교사 등 총 117명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지도교사 심화·특성화교육(실시간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

기본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심화·특성화교육은 또래상담자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도움 주는 행동전략, 스마트폰 사용 조절 전략 및 대화와 유능감 함양, 상담 기법 습득 등 과정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7월 또래상담 지도교사 226명을 대상으로 5일 간의 교육을 실시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권역·지역별 지도교사와의 간담회’ ‘또래상담자 연합회 구성’ 등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사는 “또래상담은 문제가 일어나 치료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조치까지 가기 이전에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대책이 될 것이다.”면서 “또래상담이 학교와 학급에 안전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주서부교육청, ‘회복적 생활교육 정책 간담회’

학생부장·서부부르미 컨설팅 위원 등 참석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학생생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정책 간담회’를 지난 7일 실시했다.

10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정책 간담회에는 생활교육연구회

(2팀) 회장 및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생부장, 서부 부르미 컨설팅 위원 등이 참석해 2020년 학생 생활교육을 꼼꼼히 살피고 생활교육 정책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생활교육 담당 교원 현장체험 연수 및 생활부장 권역별 협의체 운영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를 위해 교원의 관계

회복 지원 역량 강화 ▲여러 학교가 피·가해로 연결된 사안의 원활한 업무처리 프로세스 마련 ▲학생부장 격무 해소를 위한 고등 학교 및 각종 학교에 대한 수업 지원 ▲교육청-학생부장 협의체-전담경찰관의 협업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등 다양한 생활교육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2020년 3~7월 서부 관내에서는 학교폭력접수 279건, 학교장 자체해결제 144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완료 73건, 요청 14건으로 매주 8건 정도의 심의가 열리고 있다.

조인호 기자

여수특수교육지원센터, 맞춤형 물품꾸러미 전달

더봄학생 및 치료지원 대상 학생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대)은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10일간 여름방학 중 치료지원 대상 학생 20명과 관내 더봄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물품 꾸러미를 전달한다.

여수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매년 7월~8월 사이 4주간 순회 치

료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치료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예방과 대응으로 인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가정 과제 전달로 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치료 과제 꾸러미 ‘말차랍 생각 지람’은 학기 중 개별화 치료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언어치료 교재 및 교구로 구성하였으며 가정에서 교구를 활용하여 언어 자극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개별화된 학습지를 제작하여 가정에서도 꾸준한 언어 자극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살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